

조선시대 규방문화를 반영한 패션디자인 개발  
- 여성수식 장신구를 중심으로 -

홍은정\* · 간호섭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학과 교수

Development on the Fashion Design  
Reflecting Gyubang Culture of Chosun Era  
- Focusing on the Personal Ornaments of Woman's Gache -

Hong, Eun-Jung\* · Kan, Ho-Sub

M.A.,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and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e culture of each era make their own art, and it is certain a sense of beauty is changed according to a flow of era. We can find an unique beauty in the traditional culture of one era. And it is formed by the local and climatically influences according to their own ethnic character. Furthermore, an unique beauty is became an important element in forming the culture. That is, it is the universality in general. What is important is to develop of one's tradition on the background of the past for the futu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ersonal ornaments of women's Gache among the Cyubang culture in Chosun era. Throughout the study of clothing design that applies various decorative elements like an ornamental hairpin, a chignon ornament, and ttoljam among the women's Gache, this study is proposed to internationalize of clothing design utilizing the Korean specific character.

The concep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grasp a definition and notion about Gyubang Culture of Chosun Era.

Second, consider the definition of ornamental culture and the specific characters and kinds of women's ornaments .

Third, analyze the trend and examples in the modern fashion applying women's ornaments.

The method of this study included national science and literature, fashion magazines, newspapers, internet, and the research of like materials, with the intent to set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ornamental design. Throughout these backgrounds, I try to develop and make six modern clothing design that applies women's Gache.

**Key Words** : Traditional Culture(전통문화), Cyubang Culture(규방문화), Personal Ornaments of Woman's Gache(여성수식 장신구)

## I. 서론

우리나라의 장신구문화는 예로부터 타민족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우수하고 뛰어난 한민족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교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수식(首飾; 머리장식품 또는 머리꾸미개) 장신구는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의 탁월한 과학적 기교성과 더불어 자연환경에 따른 미의식이 지역성에 조화되어 보여진 독특한 조형미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아진다. 조선이전의 수식이 왕족과 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반해, 조선시대에는 평민들까지도 수식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식의 대중화는 다양한 종류의 수식을 발달시키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조선시대 수식의 종류로는 비녀, 땀기, 띠구지, 족두리, 뒤꽂이, 떨잠, 첩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수식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규방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 예로부터 쓰임과 감상을 위한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장신구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내려온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의 종류와 특성을 연구 조사함으로써 조선시대 장신구만이 가진 특색을 지적하고 그 특색을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 의상 디자인의 조형미에 대한 재인식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패션디자인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도 공존하며 미래에까지 발전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의상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종문헌 및 연구자료, 전문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조선시대 여성수식 중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을 중심으로 형태, 재료 및 제작기법에 대해 연구하여, 현대여성의 변화된 머리모양과 장신구 디자인에 어울리는 복식구조에 적절하게 응용하고자 하였다. 여성수식 장신구의 형태를 응용하면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장

식적인 아름다움을 융통성 있게 이어가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각의 여성수식 장신구를 의상에 접목시켜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규방문화의 조형적 아름다움이 표출된 한국 여인의 미의식을 알아보고, 여성수식의 장신구문화를 연구 검토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장신구만이 가진 쓰임과 조형적 특성을 현대 의상에 도입 제작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조선시대 규방문화

#### 1) 규방문화(閨房文化)

규방이란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으로, 조선시대 여인들은 규방 혹은 내당이라는 생활공간 속에서 바느질과 자수 등의 작업을 통해 복식이나 소품들을 만들어냄으로서 자신들의 솜씨와 섬세한 미의식을 표현하였다.<sup>1)</sup> 규방은 사전적 의미로 ‘여자들이 거처하는 안방’을 말한다. 규방에서의 대부분 여인들은 창조적 에너지를 오로지 바느질이나 자수 속에서만 꽃피울 수 있었다.

#### 2) 규방공예(閨房工藝) - 규방용품(閨房用品)

규방에서 여인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생활용품, 그리고 여인들에 의해 손수 제작된 수공예등 규방을 구성하고 있는 방안의 모든 생활용품들을 통틀어서 ‘규방공예’라 지칭한다.<sup>2)</sup> 창작의 기쁨과 제작의 즐거움은 여인들의 사회적 억압과 일상생활의 애환을 정화시키는 동시에 그들만의 창조적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미의 수단이었다. 이것이 규방공예를 탄생 시킨 배경이 되었다. 규방문화가 여인들의 공예활동의 총체적인 의미라면 규방용품은 문화 속에서 빛어낸 가시적 산물이다. 이렇듯, 이름 모를 여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방의 아름다운 공예품을 규방용품이라 한다.

## 2. 조선시대의 장신구

### 1) 조선시대 장신구문화

여성에게 있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여성의 자기표현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조선시대의 여인들이라 예외일수는 없었다. 사치가 극에 다다른 고려 말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는 극단적일 만큼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장신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sup>3)</sup> 그러나 조선복식에서도 장신구의 사용을 유도했으며 그러한 장신구는 복식의 미적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장신구는 신체부분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끼는 장식품과 의상을 입은 표면에 장식을 위해 붙이거나 매거나 또는 늘어뜨리는 소품과 모든 장식 목적에 필요로 하는 소구까지를 포함시켜 말하며<sup>4)</sup>, 일류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어 시대에 따른 미의식, 사회상들을 반영하며 발전하여 왔다.

조선시대의 복식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며, 색채와 문양을 절제하고 장식을 부착을 삼가 최소한 한도의 구조적인 요소의 활용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인간의 본능적인 장식욕구와 미적본능은 장신구의 사용을 자극하여 기능성이 부각된 장신구의 출현을 보게 된다.<sup>5)</sup> 조선시대에 들어와 장신구의 발달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장신구 제작과 착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통이 서게 되었고, 신체의 위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세분화되어지는 양상을 보여 복잡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분제와 결부시킨 장신구 착용의 규제를 제도화함은 장신구 제작물에 차별화를 두어 정교하고 가치성이 높은 장신용품들이 석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sup>6)</sup>

조선시대는 역사상 수식이 가장 발달한 시기로, 머리모양도 다양하였다. 부녀의 머리모양은 머리 위에 큰 엷는 가체로서 큰머리<그림 1><sup>7)</sup>, 어머머리<그림 2><sup>8)</sup>, 엷은머리<그림 3><sup>9)</sup>, 첩지머리<그림 4><sup>10)</sup>, 쪽머리<그림 5><sup>11)</sup>, 새암머리<그림 6><sup>12)</sup> 등을 신분이나 때에 따라 사용했으므로, 각 머리모양에 따른 수식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의 수식에는 갖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비녀, 뒤꽂이가 있고 상류계급에만 사용되었던 첩지, 떨잠 등이 있다.

비녀는 부녀자들의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도록 머리에 꽂는 것인데, 쪽진 머리<그림 5>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수식으로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였다. 뒤꽂이는 영조 32년에 사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가체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화관, 족두리와 함께 광해 조 때 출현한 것으로 쪽진 머리에 꽂아 장식하였다. 소재와 모양이 다양하여 크기에 따라 의식 때 큰머리<그림 1>에 꽂기도 하고, 평상시의 쪽머리 뒷부분에 장식하기도 하였다. 떨잠은 의식 때 큰머리 또는 어머머리에 장식용으로 사용한 수식으로, 떨쇠를 달아 동적이면서 아름다운 효과를 가졌다. 장신구의 종류로는 노리개, 목걸이, 귀걸이, 가락지, 뒤꽂이, 주머니 등이 있으며 장도, 침통, 바늘집, 비치개 등 실용성을 겸한 것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들의 품위와 멋을 더해 오다가 개화기 이후에는 향낭, 침낭, 장도 등의 장신구는 점차 소멸되어 갔고 노리개는 주로 성장할 때에 사용되었다.

이상 간략히 조선시대의 장신구문화를 살펴 본 바 조선의 장신구들은 금, 은과 같은 귀금속 외에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장신구가 신체의 위치에 따라 세분화 되어지는 양상을 보여 복잡하게 됨으로써 장신구가 신체의 위치에 따라 세분화되어지는 양상을 보여 복잡하게 됨으로써 장신구제작과 착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통이 서게 됨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다양한 머리모양에 따라서 사용되는 머리장신구의 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근대까지만 하여도 머리장신구는 머리를 고정시키는 것을 주목으로 하여 착용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장식적인 의미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문서자료를 기초로 조선시대의 가체의 종류와 특성을 간략하게 <표 1>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의 종류와 특성

본 논문에서는 머리를 치장하는 수식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과 같은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류 만으로 한정하여 연구 조사해 보았다.

<표 1> 머리 형태에 따른 가체의 종류와 특성

머리종류	시대	수식명칭	재 료	특 성
 <그림 1> 큰머리	18C (정조3년)	떠구지 비녀	모발(髮), 나무(木)	· 궁중에서 의식 때 사용 · 어머머리위에 나무로 만든 떠구지머리를 얹어 놓은 것
 <그림 2> 어머머리	19C	화장 옥판 떨장 비녀	옥(玉), 은, 동, 산호(珊瑚), 밀화(蜜花), 비취(翡翠)	· 예장 시 머리에 얹은 다래로 된 커다란 머리 · 상궁들이나 양반들의 머리 · 또야머리라고도 함
 <그림 3> 얹은머리	18C	떨장 첩지 비녀	옥(玉), 은, 동, 산호(珊瑚), 밀화(蜜花), 비취(翡翠)	· 부녀자의 머리를 달아서 위로 둥글게 틀어 얹은머리 · 반가에서 의식이나 궁중 출입시에 하던 가체 · 얹은머리대신 쪽진머리를 하면서 조짐머리가 생겨남
 <그림 4> 첩지머리	19C	도금장 첩지 화관 족두리	흑각(黑角), 은, 동	· 예장할 때의 머리 · 개구리 형태를 만들어 좌우, 긴 머리털을 달아 고정하는 것
 <그림 5> 쪽진머리	5C	비녀 귀이개, 빗치개 뒤꽂이	비단, 은파란, 옥(玉), 산호(珊瑚), 밀화(蜜花), 비취, 은, 동	·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출가한 여자의 머리 모양 · 크고 긴 것은 의식용 · 작고 짧은 것은 평상시용으로 사용 · 상류 계급의 금·은·옥·비취 등, 서민층 부인은 나무·뿔·뼈 등으로 만든 비녀 사용
 <그림 6> 새양머리	19C	뒤꽂이 봉나비 석옹황명기	실, 비단, 은파란, 옥, 산호, 밀화, 비취, 은, 동	· 궁중에서 지밀·침방·수방(繡房) 소속의 아가나인[內人]이 생을 맨 머리 모양 (예장용)

<표 2> 조선시대 여성수식품의 종류와 특성

명칭	종 류	특 성	재 료
비녀	<그림 7> <sup>13)</sup> 장(簪) 	· 쪽질 때 고정하는 것 · 재료, 형태에 의한 신분 구분 · 의식용 긴 비녀, 상시용 짧은 비녀 · 문양- 여인의 절개, 다남, 장수, 부귀 를 뜻하며 죽문, 매화문 주로사용	· 상류계급: 비취, 산호, 호박, 금, 은 · 서민층: 동, 백동, 목, 뿔, 뼈
	<그림 8> <sup>14)</sup> 채(釵) 		

<표 2> 계속

명칭	종 류	특 성	재 료
뒤꽂이	일반뒤꽂이  <그림 9> <sup>15)</sup> <그림 10> <sup>16)</sup> 화접뒤꽂이 화형뒤꽂이	· 쪽 머리 뒤에 덧꽂는 비녀이외의 수식물 총칭	자마노, 옥, 비취, 산호, 밀화, 진주, 은파란
	 <그림 11> <sup>17)</sup> <그림 12> <sup>18)</sup> 소형뒤꽂이 연봉뒤꽂이		
	 <그림 13> <sup>19)</sup> 빗치개뒤꽂이		
	 <그림 14> <sup>20)</sup> くい개뒤꽂이		
	 <그림 15> <sup>21)</sup> 말뚝뒤꽂이		
	 <그림 16> <sup>22)</sup> 첨(尖)		
	첩지		
 <그림 18> <sup>24)</sup> 봉첩지			
 <그림 19> <sup>25)</sup> 개구리첩지			
떨잠	 <그림 20> <sup>26)</sup> 원형떨잠	· 왕비, 상류층에 큰머리나 어머머리 때 중심과 양편에 하나씩 꽂음	옥판, 진주, 비취, 산호, 밀화, 은
	 <그림 21> <sup>27)</sup> 각형떨잠		
	 <그림 22> <sup>28)</sup> 접형떨잠		

3.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의 미적 특성

조선시대에 머리를 치장하고 정리하는 여성수식품

중 대표적으로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이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들에 내포되어 있는 기능성, 장식성, 상징성의 3가지 미적 특성으로 분

류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1) 기능성

조선시대 여성수식품 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비녀와 첩지를 들 수 있다. 여인들은 쪽진 머리에 수식의 하나로 누구나 다 비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녀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영조의 발제개혁이후의 일이다. 이는 가체를 금지하고 족두리를 장려하고자 한 것인데 그 또한 화려함으로 패단이 많아 떠구지머리로 변형하였다. 순조 중엽 이후로 비녀를 꽃기 시작하였는데 쪽머리가 보편화되면서 비녀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비녀는 부녀자들의 수발한 머리 형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도구이다.

비녀는 장신구라기보다는 일상용품에 더 가까운 것으로 우리나라 여인들이 머리 형태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고정시키는 덧 장식을 한 경우가 많아 장신구로 분류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기혼녀의 쪽진머리에 꽃는 대표적인 수식품이다. 조선후기의 여성들은 머리형태가 단순하고 길게 기르던 형태였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수식의 발달은 필연적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점차로 시대의 변화 발달로 단순히 기능적인 것에서 진보하여 미적인 실용성이 함께 강조되면서 발달하여왔다.

첩지는 예장할 때 화관이나 족두리가 첩지에 걸려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시 부녀자들에게 유행했던 사치스러운 엷은머리 대신 쪽머리를 장려하고 이에 더하여 족두리를 권장한데서 생겨난 것이라 하겠는데, 족두리나 화관이 첩지에 걸려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 2) 장식성

뒤꽂이와 떨잠은 쪽진 머리카락이나 가체를 장식하도록 제작되어진 여성수식품이다. 뒤꽂이는 쪽진 머리 위에 비녀 외에 덧꽂는 장식품으로 화관, 족두리가 발달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장식성과 실용성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머리에 꽂으면 보이는

부분을 장식부라고 하며 꽂히는 부분을 첨부라고 하는데, 장식부에 있는 문양대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뒤꽂이의 크기와 소재로써 사용자의 신분의 우열을 가릴 수 있으며, 가체가 금지되면서 더욱 발달하였다.

단순히 장식의 목적만으로만 사용되는 뒤꽂이를 일반 뒤꽂이라고 하는데, 이와 달리 장식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뒤꽂이로는 빗치개 뒤꽂이로는 빗치개 뒤꽂이, 귀이개 뒤꽂이, 말뚝 뒤꽂이 등이 있다.

떨잠은 일명 '떨침반자'라고도 부르며 왕족과 상류층 부인들이 예장용으로만 사용하였다. '어여머리'나 '큰머리'의 중심과 양편에 하나씩 꽂았던 화려한 장식품의 하나로 그 형태는 각형, 원형, 네모형, 나비형 등으로 그 위에 산호, 청강석, 진주 꽃심을 거미발로 물리개 만들고 가는 용수철 끝에는 벌이나 나비, 봉이 부착되어 여인들이 걸음을 옮길 때 마다 저절로 떨리게 만들었으며 보다 다채롭고 화려하게 장식적으로 나타내었다.

### 3) 상징성

비녀는 기혼녀의 쪽진머리에 꽂는 대표적인 수식품이다. 머리는 깊은 상징성을 지녀 신분과 품성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용잠은 예장 할 때 큰 남자머리만 사용하였으며, 서민들은 평상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혼례시에만 사용하였다. 수절하는 부인은 매죽잠이나 죽잠을 꽂았고 심장과 옥장은 남자의 귀두를 닮았다하여 정숙한 부인이나 여염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 가정의 정숙한 부인은 늦, 백동, 흑각제의 두잠 혹은 민잠을 꽂았다. 흰 나무 비녀를 꽂은 여인은 상중임을 나타내고 비녀의 선물은 청혼을 나타내며 반대로 비녀의 반환은 애정의 포기로 간주 된다.

첩지는 제도에 따르는 계급의 표시로 조선후기에 궁중을 비롯한 상류층 여인의 특수한 머리장식품이다. 첩지는 형태 및 재료에 따라 신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즉, 황후는 용첩지를 비빈은 봉첩지를 내외명부는 품계에 따라 도금한 은첩지를 사용하였다. 궁중에서는 평상시에도 사용하였으나 사대부부녀자들은 예장시에만 사용하였다. 상중에는 흑각 개구리첩지를 달았는데 상이 끝나면 소각해 버려 남아

<표 3>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의 특성

분류	특성
기능성	· 비녀- 머리 형태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덧 장식 역할 · 첩지- 화관이나 족두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
장식성	· 뒤꽂이- 쪽진 머리 뒤에 꽂는 비녀 이외의 수식품 · 떨잠- 왕족과 상류층 부인들이 예장용 꽂았던 화려한 장식품
상징성	· 비녀- 신분과 품성 상징 · 첩지- 제도에 따르는 계급의 표시 · 떨잠- 왕이나 왕족들의 상류계급에만 국한되어 외견상 구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떨잠은 궁중의 대소의식이 있을 때 왕비를 비롯하여 상류계급의 부녀자들 즉 내명부에 한하여 대수 띠구지머리 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아 장식하였다. 머리 앞부분에 꽂는 것은 선 봉잠 이라고 좌우에 꽂는 것을 떨잠이라 구분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례복인 적의와 조화를 이룬 대수의 머리 형태에서 수식의 다양한 미적 표현을 집약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인다. 영락의 떨림 들은 장식 대상이 왕이나 왕족들의 상류계급에만 국한되어 일반인들과 외견상 구별하고자 하는데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II. 여성수식 장신구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현대패션디자인 분석

한국의 장신구는 시대흐름에 따라 복색과 복제의 변화를 보이며 그 쓰임도 달라져 왔다. 특히 장식적인 미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감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장신구가 지닌 미적 가치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으며, 상류계급의 권위와 호신을 상징하기 위하여 주로 귀금속을 다루는 전통적인 기법과 기술로 발전하였다.<sup>29)</sup> 최근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조형과 디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작업되고 있다. 문화 이미지가 바로 국가 이미지인 시대에서 각 민족 특유의 전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 한국 문화의 뿌리를 되찾고 한국의 특성이 담긴 독자적인 디자인의 개발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수식들과 다양한 시대와 나라들의 전통 장신구들이 복식에 표현된 측면에서 분류하여 제시하고 이를 표현하였던 특성들이었던 기능성, 장식성,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기능성

현대적 복식에서는 여성수식품들의 기능성이 표현된 작품들은 많지 않고 사실적 형태성을 부분적 디테일들로 사용하여 표현하는 사례들로 장식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23>, <그림 24>는 이영희의 08S/S Seoul Collection 작품으로 <그림 23>은 조선시대 떨잠의 형태를 벨트에 비딩 기법을 사용하여 기능적이면서도 장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비녀를 장식적으로 코사지로 만들어 앞여밈 장식으로 기능성과 장식성 모두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4>은 예전부터 동절기에 사용하던 방한용 모자인 조바위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현대복식과 전통 장신구를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5>는 이상봉의 04S/S Paris Collection 작품으로 귀주머니를 사용하여 트렌치코트의 포켓으로 이용하여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26>는 이상봉의 07-08F/W Paris의 Collection 작품으로 포켓부분과 허리다트부분에 메탈 나비장식과 포켓부분에는 떨잠 모양의 에나멜 가죽문양을 아플리케이션으로 누빔으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3>, <그림 24> YOUNG HEE LEE  
(08S/S), SEOUL  
- www.seoulcollection.org



<그림 25> SANG BONG LEE  
(04S/S), PARIS  
- www.seoulcollection.org



<그림 26> SANG BONG LEE  
(07-08F/W), PARIS  
- www.fristviewkorea.com

## 2. 장식성

여성수식의 기존 장식적 표현기법뿐 아니라 현대적 이미지의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보다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현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7>은 이영희의 07S/S SEOUL COLLECTION 작품으로 비녀를 형태 그대로 장식적으로 사용하고, 의상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복의 형태에 수공예로 비딩하여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였다. <그림 28>, <그림 29>은 CHRISTIAN LACROIX 00-01F/W 작품으로 몽고의 여성 수식장신구였던 민속 모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아시아를 주제로 한 수많

은 컬렉션들을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 John Galiano의 DIOR과 Haute Coutur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0>은 JOHN GALLIANO의 02-03F/W 작품으로 인디언들의 깃털을 사용한 수식장신구를 머리와 눈썹부분에 표현하여 의상에서의 인디언적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림 31>은 DIOR의 03S/S Haute Couture작품으로 중국의 머리장신구와 머리에 장식하였던 꽃모양의 장신구들을 크기를 극대화시켜 표현함으로써 중국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32>은 DIOR의 02-03F/W Haute Couture 작품으로 강렬한 플라멩코에서 영감을 받은 스페인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33>은 DIOR의 04-05F/W Haute Couture작품으로 영국여왕에게 영감을 받은 티아라를 영국귀족에 대한 판타지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그림 34>는 JOHN GALLIANO의 04-05F/W의 작품으로 모티브를 아라비아반도의 예멘에서 가지고 왔으며, 예멘의 민족문화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소재와 가체들에 장식적 요소들을 가미시켜 에스닉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35>은 DIOR의 07S/S Haute Couture 작품으로 일본의 게이샤 풍에 영감을 얻어 전체적으로 비즈로 만든 꽃과 나비에 이어 대나무와 젓가락, 부채가 헤어 액세서리로 사용되었으며, 마치 새의 깃털 같은 풍성한 퍼슬리브가 달린 코트, 흐드러지게 핀 사쿠라 꽃 잎을 표현한 시퀸 장식의 재킷, 종이적기형태의 이브닝드레스 등 동서양을 조화시켰으며, 가장 현대적이었던. 가미 기법과 이케바나 기법을 사용해 일본 문화를 표현하였다.

## 3.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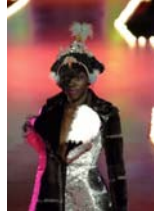
현대 패션에서의 여성 수식품들은 기존의 상징성을 내포하지 않으며, 장식성과 에스닉 스타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림 36>는 이상봉의 02-03F/W PARIS COLLECTION작품으로 현대적인 스타일에 장식적으로 자수를 이용하여 화려한 매화꽃문양을 넣어주었다. 머리장식품이었던 땃기를 어깨 장식으로 변형시켜 현대패션에서 한국풍의 스타일을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그림 37>은 이상봉의 04S/S PARIS COLLECTION작품으로 머리장





<그림 27> YOUNG HEE LEE  
(07S/S), SEOUL

- www.seoulcollection.org



<그림 28>, <그림 29> CHRISTIAN LACROIX  
(좌) (00-01F/W), PARIS, (우) (07-08F/W),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0> JOHN GALLIANO  
(02-03F/W),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1> DIOR (03S/S)  
Haute Couture,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2> DIOR (02-03F/W)  
Haute Couture,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3> DIOR (04-05F/W)  
Haute Couture,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4> JOHN GALLIANO  
(04-05F/W),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5> DIOR (07S/S)  
Haute Couture,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6> SANG BONG LEE  
(02-03F/W),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7> SANG BONG LEE  
(04S/S),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8> ALEXANDER  
MCQUEEN (00-01F/W),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39> DIOR (04S/S)  
Haute Couture,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40> DIOR (05-06F/W)  
Haute Couture,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41> D SQUARED  
(07-08F/W) MILAN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42> JEAN PAUL GAULTIER (07S/S),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43> DIOR (02-03F/W), PARIS  
- www.fristviewkorea.com



<그림 44> GIANFRANCO FERRE (08S/S), MILAN  
- www.fristviewkorea.com

식품이었던 땃기를 탐의 형태로 변형하여 모란꽃모양의 자수느낌과 크고 디테일한 꽃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동양적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그림 38>는 ALEXANDER MCQUEEN의 00-01F/W 작품으로 아프리카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목걸이를 현대적 감각의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그림 39>는 DIOR의 04S/S Haute Couture 작품으로 태양을 숭배한 이집트의 왕족들이 사용하던 머리장신구를 디자이너 John Galiano에 의해 이집트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40>는 DIOR의 05-06F/W Haute Couture과 <그림 41>는 DSQUARD의 07-08F/W 작품으로 중세시대의 갑옷의 형태들을 사실적인 형태들로 표현하여 강인한 여성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은 JEAN PAUL GAULTIER의 07S/S 작품으로 고딕양식의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을 머리 위를 비추는 후광처럼 연출된 화관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게 하여, 신성함과 키치스러움이 어우러지게 연출하였다. <그림 43>은 DIOR의 02-03F/W Dior의 작품으로 페루의 머리장신구를 니트로 문양을 짜서 표현한 방한용 모자로 현대적 감각의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44>는 GIANFRANCO FERRE의 08S/S 작품으로 동양적 문양을 자수로 표현하여, 앞여밈 부분에 장식적으로 현대패션에서 중국풍의 스타일을 더욱 부각 시켰다.

#### IV.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개발

##### 1. 작품 제작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에서 도출된 조형미를 바탕으로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의 기하학적 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여성수식품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과 새로운 방법들을 접목함으로써 이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과 연결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하고자 한 여성수식품의 형태는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 네 가지이며, 모티브의 구체적인 전개는 형태를 중심으로 작품화하였고, 디테일의 한 구조로서 이용되었다. 수식 장신구의 조형미를 적극 작품에 활용하기 위해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의 이미지를 그대로 형상화하여 여성수식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좋은 재료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작품들은 조선시대 규방문화의 조형적 특징과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기능성, 장식성, 상징성 3가지 미적특성을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단순한 형태적 응용이 아니라 옛 전통의 미와 현시대의 미적 감각을 접목시켜 독창적인 디자인을 연구하여 총 6작품제작에 적용하였다.

##### 1) 작품 I

본 작품은 Long-Coat로 구성되어있는 작품으로서, 장신구라기보다는 일상용품 역할을 했던 비녀와 주로 상류층 부인들이 사용하던 화려한 장식품 중 하나인 은파란 떨잠을 이용하여 현대적인 표현기법

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Coat의 도금호도비녀(鍍金胡桃婢女)<그림 45>매화꽃 모양으로 앞여밈장식을 Gold로 도금한 금속으로 제작하고 나비 메탈을 펄새로 사용하여 원석을 매치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려 하였다. 떨잠<그림 45>의 금속부분은 금도금하여 화려한 느낌을 더욱 강조 하였고, 떨잠 그대로의 형태성을 표현하기위해 메탈에 원석들을 사용하여 떨잠에서 표현된 색감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심플한 H라인의 Coat는같은 칼라계열의 누빔소재와 솔리드 캐시미어를 사용하여 소재의 변화를 주어 표현한 작품이다.

## 2) 작품 II

본 작품은 Jumper는 새틴 원단을 누빔하고, 2oz 솜 본딩하여 전체적으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디자인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벌룬 스타일의 Jumper이며, 칼라부분과 밑단부분에 니트를 사용하였다. 도금 국화형 뒤꽂이(鍍金菊花形簪)와 낫쇠떨잠<그림 46>(서민들이 예장용으로 사용하였던 머리장식품)을 형태성과 입체감을 주기위해 국화꽃모양을 도안으로 하여 자수기법을 사용하여 Jumper의 가슴부분에 뒤꽂이의 모양으로 상징성을 가미하였다. 소매 부분에는 양 가죽을 낫쇠떨잠의 형태의 문양을 파서 아플리케 기법으로 누빔 처리하여 문양의 주변에는 비딩과 금속장신구로 장식하여 떨잠 그대로의 형태를 소매부분에 표현하여 장식성을 나타내었다.

## 3) 작품 III

본 작품은 그레이 컬러를 이용한 Long Jacket으로 캐시미어와 누빔 원단을 사용하여 더블버튼 자켓으로 디자인하였다. 금속 장식판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혼례나 대사(大事)에 사용 하였던 비교적 크고 둔탁한 뒤꽂이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자수기법을 사용하여 양쪽 머리에 봉이 장식된 특이한 형태의 도금 쌍봉침지<그림 47>를 여밈 장식으로 나타내었다. 더블버튼 Long Jacket은 어깨에서 포켓까지를 연결하는 부분에 뒤꽂이를 가죽을 아플리케하여 누벼 비딩 장식을 하였고, 앞여밈 장식으로 침지의 형태를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디자인 하였다.

## 4) 작품 IV

본 작품은 One-piece로 주요 칼라로는 그레이, D/Pink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벌룬 스타일의 미니 원피스이다.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비녀의 머리 부분을 원피스의 하단 부분에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무당 뒤꽂이<그림 48>는 일명 '정'이라고도 하며 무당이 꽃았던 것으로 이 뒤꽂이의 형태를 은 펄이 가미된 스웨이드 원단으로 재단하여 아플리케 기법으로 누빈 후 비딩으로 표현한 작품으로서 비녀의 단아한 느낌을 자수로 나타냄과 함께 여성스러운 성숙된 아름다움의 상징적의미를 강조하여 디테일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심플한 표현으로 디자인하였다.

## 5) 작품 V

본 작품은 침지와 떨잠으로 디자인하여 표현한 것이다. Vest는 어깨 끝부분을 도금 개구리 침지(鍍金龍蠶至)<그림 49>는 앉아있는 개구리의 형태를 그대로 메탈장식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가죽을 사용하여 침지의 대 모양을 그대로 문양을 파서 아플리케 기법으로 누빔 효과를 주었으며, 비딩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또한, 앞여밈 부분에는 떨잠 형태의 단추를 제작하여 장식적으로 사용되도록 표현하였으며, Pants는 현대복식의 형태인 크롭 팬츠형태에 밑단부분은 누빔 원단으로 장식하고 메탈 장식에 비딩하여 디자인한 작품이다.































## 6) 작품 VI

Bolero, Pants, Wide Belt로 구성되어 있는 본 작품은 수식품 중 비녀와 침지<그림 50>를 이용하여 디자인한 작품이다. Bolero는 한복에서의 배자의 형태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고 캐시미어와 새틴 누빔 소재를 사용하여 소매 끝부분에는 밍크로 장식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Wide Belt의 디자인에 비녀의 형태를 앞 중심부분에 침지 모양을 비딩을 사용하여 형태성을 표현하여 침지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다. Pants는 와이드 팬츠로 턱을 넓게 잡아 디자인하였고 턱잡은 부분에 니켈 메탈장식을 비즈와 함께 장식적으로 표현하려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려 하였다.

<표 4> 작품계획표

작품 번호	ITEM	모티브	표현 특성	소재	기법	색상	작품의 모티브
I	Long Coat	<그림 45> 비녀 <sup>30)</sup> 떨잠 <sup>31)</sup>	기능성 장식성	새틴, 2oz슴 캐시미어 모피, 메탈 비즈, 원석	누빔 비딩 트리밍		
II	Dress Jumper	<그림 46> 뒤꽂이 <sup>32)</sup> 떨잠 <sup>33)</sup>	장식성 상징성	새틴, 2oz슴 미니모피, 니트, 메탈 비즈, 원석	누빔 자수 비딩 트리밍		
III	Long Jacket Pants	<그림 47> 침지 <sup>34)</sup> 뒤꽂이 <sup>35)</sup>	기능성 장식성 상징성	새틴, 2oz슴 캐시미어 미니모피 가죽, 메탈 비즈, 원석	누빔 비딩 아플리 케		
IV	One-Piece	<그림 48> 비녀 <sup>36)</sup> 뒤꽂이 <sup>37)</sup>	장식성 상징성	새틴, 2oz슴 울(Wool) 가죽, 비즈 원석	비딩 아플리 케 트리밍 비딩		
V	Vest Knit Pants	<그림 49> 침지 <sup>38)</sup> 떨잠 <sup>39)</sup>	장식성 상징성	새틴, 2oz슴 울(Wool) 가죽, 메탈 비즈, 원석	누빔 아플리 케 비딩		
VI	Bolero Wide Belt Pants	<그림 50> 비녀 <sup>40)</sup> 침지 <sup>41)</sup>	장식성 상징성	새틴, 2oz슴 울(Wool) 가죽, 메탈 비즈, 원석	누빔 아플리 케 비딩		

<표 5> 작품 사진

작품 번호	디테일		작품사진I		작품사진II
I					
II					
III					
IV					
V					
VI					

## V. 결론

규방문화에서 아름다움과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 근거하여 옛 여인들의 미의식이 반영된 규방용품을 단순히 물질이 아닌 여인들의 삶이라는 정신적 개념으로 보았고 이를 고품위의 현대적 감각으로 승화시켜 재창조하였다. 규방용품의 조형요소와 미적요소를 현시대의 정서와 동질성을 형성하고 있는 근원을 찾아내어 규방용품의 전통적 미와 오늘날의 미적 감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제작을 연구하였고, 본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여성수식품인 장신구는 시대, 의생활,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발달하여 왔다고 보아진다. 시대가 바뀌어 의생활의 양식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천됨에 의해 장신구의 쓰임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욕구와 주술적인 의도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의 표상으로까지 규제되어 쓰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검약함을 기초로 한 유교정책과 복식에 대한 국책상의 제약을 받은 조선의 장신구가 삼국과 통일신라의 화려한 귀금속 장신구에 비해 다소 질소(質素)한 면을 갖긴 했으나, 장신구 제작과 착용에 있어 신분에 따른 체계적인 계통과 신체의 위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세분화되어 지는 양상을 보여 복잡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의 여성수식 장신구들 중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의 발달을 더욱 높이 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둘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수식 장신구들을 미적특성인 기능성, 장식성, 상징성으로 분석하였다. 기능성은 사물을 양식화하여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사실적인 형태를 중시하여 세밀하게 사용하고 디테일하게 장식적인 효과를 주어 표현하였다. 장식성은 아플리케, 비딩, 자수 등의 기법들과 소재들을 다양하게 접목시켜 표현하였다. 상징성에서는 수식 장신구의 고유의 상징적 의미보다는 수식품들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역할로 문양의 원형을 그대로 표현하여 이미지화하기도 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여성수식 중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 네 가지로 6

작품을 제작하였다. 수식 장신구의 미적 특성인 기능성, 장식성, 상징성의 3가지 특성이 디자인에 투영될 수 있도록 수식의 기능성은 정형화된 모양으로 배치와 함께 여밈이라는 의상에서의 기능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시도하였으며, 문양 그대로의 형태로 입체감과 질감을 살려 장식성을 표현하였으며 전통에서의 상징적인 특성은 사라졌으나 전통적인 문양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를 상징성으로 작품에 나타내었으며, 동·서양적인 누빔, 아플리케, 비딩 등의 표현기법을 현대패션에 접목시켜 동, 서양의 조화된 미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와 세계패션계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의 디자인을 만들고자 다양한 의상기법들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에 맞도록 재조명해 보았다. 끝으로, 여성수식 장신구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장신구문화는 각종 장신구에 나타나는 조화된 형태의 아름다움과 고도로 발달된 기술의 발휘로 인해 우리 민족의 슬기와 창의를 세계만방에 알린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장신구 조형에 대한 미의식과 이상을 높이고 풍부한 감각과 창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보아진다.

## 참고문헌

- 1) 이기문 감수(2001), *동아 새 국어사전*, 두산동아, p.320.
- 2) 최정임(2003), “한국 전통미와 규방공예의 현대적 이해 - 텍스타일 디자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15.
- 3) 김지영·김문진(2000), *규방공예, 걸쳐라인*, p.30.
- 4) 황호근(1976), *한국장신구 미술연구*, 일진사, p.6.
- 5) 임원희(1993), “전통수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남자수식 및 단추식의 조형성을 응용한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p.4.
- 6) 김태정(2000), “조선시대 여성수식 장신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학회*, 3(1), p.41.



- 7)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자료 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hair.culturecontent.com>
- 8)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자료 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hair.culturecontent.com>
- 9)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자료 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hair.culturecontent.com>
- 10)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자료 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hair.culturecontent.com>
- 11)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자료 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hair.culturecontent.com>
- 12)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전통 머리 모양새와 치레거리, 자료 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hair.culturecontent.com>
- 13)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칠보장과 버섯장)*, p.24.
- 14) “비녀에 대한 이미지”,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 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 15)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파란화점뒤꽃이)*, p.42.
- 16)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화형뒤꽃이)*, p.46.
- 17)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소형뒤꽃이)*, p.44.
- 18)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연봉뒤꽃이)*, p.36.
- 19)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파란빛치개뒤꽃이)*, p.35.
- 20)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귀개뒤꽃이)*, p.39.
- 21)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파란화점조뒤꽃이)*, p.43.
- 22) “뒤꽃이”,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 23)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용첩지)*, p.16.
- 24)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봉첩지)*, p.16.
- 25)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도금개구리첩지)*, p.17.
- 26)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떨장)*, p.48.
- 27) “한국인의 머리장식”,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7, 10, 11,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 28)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은파란나비떨장)*, p.49.
- 29) 임원희(1993), op.cit. p.43.
- 30)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도금호도비녀)*, p.28.
- 31)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은파란떨장)*, p.48.
- 32)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도금국화형 뒤꽃이)*, p.47.
- 33)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늦쇠떨장)*, p.55.
- 34)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뒤꽃이)*, p.55.
- 35)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쌍봉첩지)*, p.16.
- 36)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무당뒤꽃이)*, p.55.
- 37)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은칠보매죽비녀)*, p.25.
- 38)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도금개구리첩지)*, p.17.
- 39)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떨장)*, p.48.
- 40)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도금용첩지)*, p.16.
- 41)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단편)(1999), *담임복식미술관 개관도록(은칠보매죽비녀)*, p.25.

접수일(2008년 8월 29일)  
 수정일(1차 : 2008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2008년 10월 13일)